

'95 제1검정소 최우수종돈장상 수상 성현농장

취재 : 추용진

본회 제1·2검정소는 종돈능력검정과 우수 종돈의 보급을 위해 전국의 종돈장으로부터 출품 받은 검정돈을 대상으로 매년 검정성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종돈장을 선정하고 있다.

'95년 한해 동안 제1검정소에 종돈을 출품한 종돈장중 검정성적이 가장 뛰어나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성현농장(대표 : 김영석, 전화 : (0351) 40-7199)을 찾아보았다.

성현농장은 제1검정소가 지난해 출품된 검정돈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한 결과 챔피언돈 11회 배출, 평균 선발지수 225점, 합격두수 131두, 합격률 75.7%로 193.7점을 기록하여 제1검정소 최우수종돈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종돈위주의 선발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가업리 90번지에 위치한 성현농장은 넓게 펼쳐진 벌판에 잘 포장된 도로가 농장의 입구까지 나 있었다. 김영석사장은 1979년에 돼지 250두로 양돈을 시작하여 현재 종돈 250두와 포천에 있는 듀록 전문 농장의 200두를 포함하여 450두 규모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다. 성현농장은 3,000여평의 부지에 900평 건평으로 김사장과 두동생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가족단위의 전업 규모 종돈장이다.

성현농장은 종돈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백색계통인 랜드레이스와 대요크셔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도입하고 유색계통인 듀록은 캐나

다, 미국에서 직접 외국의 종돈장을 방문하여 선발하였다.

선발방법은 외국의 종돈장으로부터 종돈의 검정결과가 자세히 기록된 자료를 FAX로 전송 받은 다음, 현지에 직접 방문하여 능력이 우수하고, 강건한 지체와 유두 배열이 고른, 외적으로 손색이 없는 것을 선발하였다.

선발 비율은 요크셔 40%, 랜드레이서 20%, 듀록 30%, 햄프셔 10%로 되어 있고 듀록은 듀록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포천의 성현듀록농장에서 금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이 될 것이다.

김사장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능력이 뛰어난 우수종돈을 도입하여 품종별, 원산지별로 기초돈군을 꾸준히 작업해 왔으며, 선발을 통해 국내의 스톨사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은 도태시키고, 우리 양돈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난 것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왔다."면서 최우수 농장



▲김영석 사장의 모습

으로 선발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후에 맞는 종돈 계량에 남다른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계통을 조성한 결과 복미 계통의 종돈들이 추위에 강하여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지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종돈이 분양된 농가들의 반응이 좋다고 한다.

가족중심의 경영으로 질병예방을 우선으로 관리

성현농장의 종돈 선발은 20일령에 1차, 70일령에 2차, 검정종료시에 3차 선발로 이루어진다. 1차때는 복당균일도, 전체 이유시 체중, 산자수를 위주로 보고, 2차때는 사지상태, 유두배열 등 외모심사를 한다. 3차선발은 검정종료시(90kg)에 실시하고 등지방, 체장, 체고, 일당중체량, 정육률 등의 점수 산정으로 평가한 후 최종 선발을 하여 분양한다.

성현농장은 컴퓨터를 이용해 자체 농장 경영 프로그램으로 기록을 하고 있으며, 90kg 도달일령 138~139일, 농장 평균산자수 11.4두, 분만 횟수 2.3회전, 이유시체중(28일령) 8.5kg, 모돈 1두당 출하두수 21두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종돈의 분양은 각 농장의 여건에 맞는 돼지를 선발한다.

돼지분뇨의 처리는 스크레퍼로 수거한 후 돈분장에서 톱밥을 이용하여 발효·건조시키고 또 양주군에서 지원한 분뇨 차량을 이용해 액상 처리한 분뇨를 집적 초지에 분사하거나 인근 부추재배 단지에 사용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에 대한 문제는 없다.

특히 성현농장은 종돈장의 최우선 과제인 질병예방을 위하여 가족 모두가 온 정성을 쏟아 돼지를 관리함은 물론 100두 내외로 돼지의 혈청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질병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5일에는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채혈을 실시하여 오제스키 질병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 모든 차량과 출입자는 철저한 소독을 받아야 하며 돈사내에서는 1일 5~6회로 안개분무를 실시하고 있다.

성현농장은 가족 중심의 경영으로 온 가족이 돼지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데, 칠순이 가까운 김사장의 부친은 돼지의 분만시 직접 간호 분만을 하여 3일 동안 포유를 시킨다. 또한 모돈에게 열이 있으면 유질이 나빠진다고 하여 분만사에서 온 도계를 가지고 다니면서 관리를 할 만큼 남못지 않는 애정으로 돼지를 돌보고 있었다.

김영석사장은 종돈을 분양하기 전에 분양되는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의 상태와 여건을 확인하고 농장의 환경에 맞는 돼지를 선발하여 분양하고 있으며, 종돈의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본회 양주지부 회원으로서 지부 회원들과 공동으로 사료 및 약품을 구매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있는 김영석사장은 “양돈협회 양주지부, 양주군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고, 주위의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셨다.”며 “성현농장을 찾는 분들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종돈을 보급하는 종돈장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지켜 나가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